

무게감 커진 정당투표...3만 7000명 새내기 표심 촉각

〈만 18세〉

■연동형 비례제 첫 도입...출렁이는 광주·전남 총선판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한·일월드컵이 열렸던 지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광주·전남지역 만 17세 3만7800여명이 당장 내년 총선에서 투표하는 등 지역 정가에도 많은 변화를 줄 전망이다.

그동안 한 번도 투표를 하지 못했던 만 18세 젊은 유권자의 표심이 지역 정가에도 상당한 파문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각 정당도 청년일자리와 주거문제 등 '새내기 유권자'를 겨냥한 공약과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1표와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1표 등 유권자 개인당 2표를 행사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정당 투표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1인 2표, 정당투표 중요성 무게=개정 선거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하도록했다. 정당 득표의 연동률을 50%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상한선(cap·캡)은 30석으로 설정했다. 100% 연동률이 아닌 50%만 적용한 점에서 이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선 이 같은 변화는 비례대표 배분 방법을 크게 바꿀 전망이다. 그동안 총선에서 각 정당은 정당투표에서 얻은 비율, 즉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갔다.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비례대표 의석(47석) 중 33.5%의 득표율을 기록한 새누리당(옛 자유한국당)이 17석을, 25.5%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13석을 각각 획득했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의 위력을 더 강화한다. 단순히 비례대표 표에 매어놓은 묶임만 정당 득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석(300석)에 이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 계산한 뒤 이

정당 새 유권자 겨냥 공약 준비
기존보다 정당 득표 위력 커져
우후죽순 소수당 혼란 우려도

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한다.

가령,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제외한 50석 중 절반, 즉 25석을 보장받게 된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선거결과에 따른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같은 산식에 따라 B 정당이 비례대표 10석을 배분받으면 두당은 30석을 기준으로 '1(B 정당)대 2.5(A 정당)'의 비율로 정당 득표율 다시 조정해야 한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A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21석을, B 정당은 9석을 확보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캡을 씌운 30석 외에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인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던 기존 방식(병립형)을 따른다.

이에 따라 정의당 등 정당 지지도에 비해 지역 기반이 약한 소수정당들에 한층 유리한 제도로 평가된다.

광주·전남 새내기 유권자의 선택은?→또 다른 가장 큰 변화는 만 18세 국민이 유권자로 새로 편입된다는 점이다. 정확히는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는 53만2295명이다. 광주에서는 1만8393명, 전남에서는 1만9460명 등 이 지역에서 3만7853명이 대상이다.

이 같은 변화는 각 정당의 선거전략에도



대안신당 광주시당 창당준비위원회가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창당발기인과 지지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정치 판을 바꿔보자'며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열고 있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표심에 따라 선거의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교묘한 분석이 각 정당의 시급한 과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표 행사권이 없던 만 18세 이하 유권자 이던 분석 대상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당선을 겨냥한 정당들의 잇따른 창당도 예상할 수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 해도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개편된 선거제도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 밖에도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당선을 노린 소수당이 우후죽순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대안신당 광주시당 창당...“중도개혁 제3정치세력 결집 시작”

내달 12일 중앙당 창당

대안신당은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열고 제3정치세력 결집에 나섰다.

이날 광주시당 창당대회에는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전정배·장병완·최경환·장정숙 국회의원과 광주 지역 총선 출마자 및 당원,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광주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최경환 의원은(북구)은 수락연설을 통해 "대안신당의 목표는 제3정치세력 결집과 통합을 통해 내년 4·15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며 "광주시당 창당대회는 제3정치세력 결집의 시작이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한 중도개혁의 모든 제3정치세력과 함께 할 것이고 통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대안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제3정치세력의 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새로운 신진 인사들, 뉴DJ들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중물,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무소속 세력들에게 "선거법에서 통과된 만큼 대안신당과 함께 제3세력 통합을 위한 원탁회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호남 정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건전한 경쟁이 필요하다"며 "광주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고 키우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다"고 밝혔다. 천정배(광주 서구을)의원은 "촛불혁명 3년, 문재인 정부 2년 반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고 거대 양당은 적대적 공존의 싸움만 정치, 극단적인 대립의 정치를 일삼고 있다"며 "대안신당이 거대 양당과 경쟁할 수 있는 제3세력을 결집시키는 중심이 되어야 하고 호남에서도 양당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안신당이 다당제 합의를 민주주의의 길을 열고, 호남도 나라도 잘사는 정치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안신당은 오는 1월 12일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안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청와대 “조국 영장 기각결정 존중...검찰 무리한 판단 드러나”

“조 전수석 통상적 업무 수행”

지난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법원은 그와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언급도 했다”고 답했다. 이 관

계자는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에서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이 계속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어떤 사건이든 결국 수사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검찰이 공수처법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냈는데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쥐섬·구서고·현서...전남, 쥐 관련 지명 25개, 전국서 가장 많다

경자년 쥐의 해 맞아 지명 분석

쥐와 관련된 전남지역 지명은 2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0년 경자년(庚子年) 쥐의 해를 맞아 전남 지명을 분석한 결과, 쥐와 관련된 지명이 총 25개로 집계됐다.

전국에 쥐와 관련된 지명이 64개인 것을 고려하면 39%(25개)에 이른다. 전남이 가장 많고 전북 9개, 경남 6개, 경

북 5개, 대전 3개 순으로 나타났다.

25개의 지명 중 15개(60%)가 섬 또는 해안가에 위치, 서남해안에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별로 ‘쥐섬’이라는 지명이 신안(庚子年) 쥐의 해를 맞아 전남 지명을 분석한 결과, 쥐와 관련된 지명이 총 25개로 집계됐다. 전국에 쥐와 관련된 지명이 64개인 것을 고려하면 39%(25개)에 이른다. 전남이 가장 많고 전북 9개, 경남 6개, 경북 5개, 대전 3개 순으로 나타났다.

곡성 오산면의 ‘선세(善世) 마을은 쥐가 다닌다는 의미로 ‘현서(縣署)’라 불리다가 마을이 우연히 폐촌되고 인심이 변하자 이를 지명(地名) 탓이라 생각

해 선포하고 어진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의 ‘선세(善世)’로 바뀌었다고 전해진다. 쥐는 자연재해를 미리 예고해주는 영물로서 해안과 도서지방에서는 뱃길의 안전, 농사의 풍작과 흉작을 결정해주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숭배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